



주간통일정세 2009-06(2009.02.02~02.08)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9-06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홍남비료 시찰, 비료생산 독려(2/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대 비료 생산 공장인 함경남도 함흥시 소재 홍남비료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고 인민군 제324대연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
- 김 위원장은 홍남비료연합기업소 시설을 둘러본 뒤 “식량문제를 풀자면 농촌에 비료를 많이 보내줘야 한다”며 “비료공장의 모든 생산공정들을 최신설비로 장비하기 위한 기술개선(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
- 그는 이 기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스화 암모니아 공정과 관련, “새로운 암모니아 생산공정은 농업발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상”이라며 “도안의 당 및 근로단체조직, 행정경제기관에서 여기에 총역량을 집중하고 락원기계연합기업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등 연관 기업소에서 공사에 필요한 대상설비를 신속 정확히 생산·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우선적인 자재보장을 지시
- 김 위원장은 이어 함흥 시내를 둘러보고 시 건설계획을 조감도와 함께 청취한 뒤 “도로형성, 건물형식과 배치, 유원지 조성과 문화 및 체육지구 형성을 비롯한 모든 대상을 특색있게 건설하며 특히 지하망 건설과 도시난방에 신중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며 전기문제 해결을 위해 금진강에 발전소 건설을 강조
- 또 과학원 함흥분원에서 개발한 제품을 살펴본 뒤 “함경남도는 많은 기간공업기업소들, 특히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큰 공장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시
- 김 위원장은 현지지도에 이어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남기 당 부장, 리제강·리재일 당 중앙위 제1부부장, 현철해·리명수 대장 등과 함께 함경남도 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을 관람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함경남도 경제시설에 대한 현지지도와 함께 인민군 제324대연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고 이 부대의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 김 위원장이 최근 함경남도 지역을 집중적으로 시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대는 함남도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관측



● 낮술 마신 김정일 건강 과시(2/6, 조선일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월 23일 방북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오랜 시간 점심을 들면서 도수(度數)가 높은 술을 여러 잔 마셨다고 베이징(北京)의 외교 소식통이 5일 보도
-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1월 23일 오전 왕 부장과 회담한 뒤 2시간 넘게 함께 점심을 했는데, 반주로 북한산 술(증류주)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 건배제의를 하면서 이 술을 소주잔보다 약간 작은 잔에 담아 여러 잔 들이켰다”고 전언
- 이를 두고 베이징 외교가에선 김 위원장이 작년 가을 뇌수술 이후 외국 인사로는 처음으로 왕 부장을 대면,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 다소 ‘오버’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 일본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외교소식통을 인용해서 “김 위원장이 왕 부장 면담을 앞두고 몸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 1주일 이상 지방시찰 활동도 자제했다”며 “오찬이 5시간가량 지속됐다”고 보도

● 中, 주변국에 김정일 건강 이상무 통보(2/5, 마이니치신문)

- 중국의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최근 북한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한 것과 관련, 중국 당국이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안색이 좋고, 왼손 움직임도 문제가 없다”고 주변국에 통보했다고 일본 마이니치(毎日)신문이 5일 보도
- 베이징(北京)의 외교 관계자가 마이니치에 밝힌 바에 따르면 왕 부장의 방북은 북한측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중국 고위 간부에게 김 위원장의 건재를 확인시키고 권력구조에 변화가 없음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신문은 보도
- 중국 당국은 1월 21일 평양에 들어가 23일 백화원초대소에서 김 위원장과 면담하며 식사를 같이한 왕 부장의 보고를 토대로 주변국에 대해 “예전 보다도 머리술이 적어 늙어보이긴 했으나 안색은 좋았으며, 대화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보고, 또한 좌반신에 마비 증세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왼손으로 물건을 드는데 문제가 없었으며, 수족을 포함한 동작에도 부자연스러운 곳이 없었다”며 그의 건강에 별 문제가 없다는 총괄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신문은 소개, 김 위원장은 왕 부장 일행과 2시간에 걸쳐 행동을 함께 하며 식사도 같이 했던 것으로 알려짐.

나. 정치 관련

● 北김정일, 전 선거구서 대의원 후보로 추대(2/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8일 북한 전역의 선거구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우리의 국회의원) 후보로 추대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북한은 지난 1일 군인 선거구인 ‘제333호 선거구’에서 김 위원장을



제12기 대의원 후보자로 추대하는 첫 모임을 가진 이후 전역의 선거구에서 그를 후보자로 추대하는 모임을 잇달아 가졌음.

- 8일로 김 위원장을 북한의 모든 선거구에서 대의원 후보자로 추대하는 행사가 종료됨에 따라 김 위원장은 자신의 생일인 오는 16일을 전후로 맨 먼저 자신을 후보로 추대한 제333호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것으로 예상됨.

● **조평통 성명 흐지부지 없을 것(2/8,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8일 ‘전쟁을 부르는 망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성명이 “우리 공화국(북한)의 공식 입장을 대변한 법적 성격의 문건이라는 것을 (남측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따라서 그에 천명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결코 흐지부지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
- 우리민족끼리는 조평통 성명은 북한의 “인내와 아량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이전 시기의 북남 합의들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뒤집어엮고 있는 조건에서 부득불 취하게 된 조치”이며 남한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을 짓밟개버리기 위한 단호하고도 추동적인 조치”라고 역설, 또 “대결에 미쳐 날뛰는 자들과는 끝까지 결산을 보고야 마는 것이 우리의 기질이며 한다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남측은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과 조평통 성명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

● **한미 군사훈련 비난(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남한 육군과 주한미군이 연합 훈련을 진행한 데 대해 “북침을 노린 합동군사연습”이라고 8일 비난, 통신은 “반공화국 대결책동으로 북남관계를 전면 파탄시키고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전쟁 접경의 최악의 상태에 몰아넣은”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의 “북침 합동전쟁연습에 열을 올리면 올릴수록 그것은 저들의 파멸의 시각을 재촉하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
- * 육군 제26기계화보병사단은 2월 5일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에서 미 1여단과 함께 전차·장갑차 도하훈련을 실시했으며, 육군 제53보병사단은 6일 부산항에서 주한 미해군 수송사령부와 부산지방경찰청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 연합 테러대비 훈련을 가졌음.

● **北, 玄장관 되면 남북관계 더 악화(2/8,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8일 ‘수수방관할 수 없는 사태’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장관직에 오를 경우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더 악화돼 아예 결단나고 말 것”이라고 주장
- 민주조선은 현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9일 열리는 것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동족 대결의 돌격대로 나선 현인택의 죄악을



반드시 계산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주장, 이어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현 내정자에게 “통일부 장관 감투를 씌워주려 함으로써 북남 공동선언들을 존중한다고 한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며 동족 대결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려 한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다”며 “그로 말미암아 이제 북남관계에서 그 어떤 사태가 빚어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 대통령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39차 중앙위원회 개최(2/7, 조선중앙방송)**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가 6일 평양에서 제39차 전원 회의를 갖고 2009년 신년공동사설 관철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노동신문, 평화적 우주이용권 강조(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평화적인 우주이용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란이 자체 개발한 위성 운반용 로켓 사피르-2호에 실려 발사된 ‘오미드’ 인공위성의 발사 성공을 거론하면서 ‘평화적 우주이용권’을 강조
- 신문은 “이란의 이번 위성발사는 자기 나라의 국력을 시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주개발과 이용에서 독점권이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
- 또 “우리나라는 이미 전에 평화적인 우주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을 꾸려 놓았다”며 “지금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발전하는 현실과 국제적 추세에 맞게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 신문은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 우주 진출과 그 이용정책은 시대적 발전에 부합되는 정당한 것”이라며 “이를 막을 힘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역설

● **조선신보, 이란 위성, 美패권에 강한 억제력(2/6,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6일 이란이 자체 개발한 위성 운반용 로켓 사피르-2호에 실려 발사된 ‘오미드’ 인공위성의 성공에 대해 “미국의 패권에 대한 강한 억제력이 또 하나 생긴 셈”이라고 평가

● **노동신문, 만경대 가문 언급(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6일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이 구호를 더 높이 들고 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래를 위한 투쟁을 강조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가문으로 일컫는 ‘만경대 가문’을 언급
- 신문은 “미래를 위하여, 이것은 조선혁명의 전역사에 관통되어 있는 고귀한 정신”이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부인 김형직이 내놓았다는 ‘지원(志遠)의 사상’을 거론, 특히 ‘지원’의 의미를 “대를 이어 혁명을 끝까지 해야 한다는 사상”이라며 김형직이 지었다는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도 “만경대 가문의 투철한 혁명관, 미래관이 깃들어 있다”면서 김일성 주석과 김 위원장으로 이어진 혁명을 강조

● 김정일 생일행사, 본격 시작(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7회 생일(2.16) 행사를 본격 시작, 북한은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최태복 당 중앙위 비서와 김용진 교육상, 김중협 노동신문사 책임주필, 장운곤 국제문제연구소장, 김영호 내각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 위원장의 ‘업적에 대한 중앙연구토론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외무성에서는 김 위원장의 생일에 즈음해 박길연 부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주재 국제기구 대표부 관계자들을 초청, 친선모임을 개최했고 문화성도 북한 주재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위한 영화감상회와 친선모임을 대동문영화관에서 마련
-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북한 정부는 5일 사회과학원 김왕섭 연구사에게 ‘후보원사’ 칭호를 수여하는 등 지식인들에게 학위·학직을 수여, 4일에는 김 위원장의 생가로 선전되는 ‘백두산 밀영 고향집’을 방문하는 전국 청소년학생들이 량강도 혜산시 보천보 전투승리기념탑 앞에서 출발모임을 갖고 행군을 시작

● 조선신보, 北미사일…美주시하며 대응책 강구(2/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5일 ‘미국의 군사위협에 대처한 외교공세’ 라는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힘. 또 최근 북한 외무성과 인민군 총참모부의 핵군축 주장에 대해 “북미 간 교전상태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강조
- 신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도발적”이라고 규정한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의 브리핑을 거론, “언론을 이용한 일방적인 여론몰이는 미국의 상투적 수법”이라고 지적한 뒤 티머시 키팅 미 태평양사령관의 대북 급변사태 대비 군사연습 발언을 언급하며 “공중과 해상에서 미군의 군사 장비들이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오마바 정권이 출범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대조선 외교에서는 넉넉한 유예기간이 허용되지 않는 듯하다”며 “해마다 3월쯤에는 미군과 남조선군에 의한 대규모 군사연습이 진행되고 최근의 사태추이에 비춰볼 때 조선을 도발하고 군대의 신경을 자극하는 움직임들이 계속될 경우 보다 강경한 대응책이 강구될 공산이 높다”고 말해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 등의 기간에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가 이뤄질 수도 있음을 시사
- 조선신보는 또 1월 13일 외무성 대변인의 핵군축 발언을 거론하면서 “미국도 반드시 조선(북)과 똑같이 핵무기를 버려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며 “조선의 핵포기를 논하기에 앞서 조·미가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교전상태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언급

● **北, 반제투쟁 양보·타협 불가(2/5,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5일 ‘사회주의는 인민의 생명-투철한 반제자주적 입장 고수’라는 해설에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대북 “정치군사적 압력과 경제적 봉쇄 책동을 전례없이 강화하고 있다”며 “견결한 반제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현 시기 사회주의 위업을 옹호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 문제의 하나”라고 강조
- 매체는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과 공포는 사람들의 계급의식,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는 위험한 사상 독소”라면서 “반제투쟁에서 양보와 타협은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불러온다”고 지적, 철저한 사상 무장을 요구

● **北·美관계는 美태도에 달려(2/5,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5일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 압살 기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앞으로 조(북)·미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고 주장
- 방송은 또 “대화는 정세의 완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긴장 격화는 조·미 적대관계를 군사적 충돌 계선으로 이끌어갈 뿐”이라며 “지금까지 계속된 조미 대화와 6자회담은 대결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

●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중앙위원회 제62차 전원회의 개최(2/4,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중앙위원회 제62차 전원회의가 3일 평양에서 열려 올해 공동시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4일 보도

● **조선신보, 북미 핵공방 새 국면(2/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4일 ‘냉전종식 20년’이라는 제목의 ‘메아리’ 코너에서 “국제정치 무대에서 고정불변의 존재는 없다”며 북한과 미국 간 “핵공방도 새 국면에 들어섰다”고 말하고 “조선(북한)은 진정한 변혁을 위한 외교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지난 1989년 12월 말타회담에서 미국과 소련의 정상들이 냉전종식을 선언한 지 올해로 20년이 됐지만 “조선반도(한반도)의 대결구조는 청산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이어 “미국에서 변혁을 제창하는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 1월, 냉전 후에 거론된 바 있는 주제들이 다시 부상했다”며 최근 북한 외무성이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남조선(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질 때에 가서는 우리도 핵무기가 필요 없게 될 것”이라며 남한에 미국의 핵무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도 요구한 사실을 지적, 이어 신문은 “미국의 과거 (남한에서 핵무기 철수) 언동이 거짓이 아니라면 신임 대통령의 입장에서조차 주저할 일은 아니다”고 주장

● **北, 신세대 계급의식 교육강화 주문(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계급적 각성을 가지고 반제자주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계급적 원수(원수)들”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을 강조하면서 계급적 원수들은 “시련을 겪지 못하고 평화로운 생활에 도취된 새 세대들을 반동적인 사상공세의 기본목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새 세대들의 계급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
- 노동신문은 “간고한 혁명의 길을 헤쳐온” 세대의 “혁명적 지조”는 강하지만 “새 세대들에 대한 계급교양사업을 소홀히 하면 그들이 반동사상에 쉽게 오염되게 되며 이미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을 순간에 말아먹을 수 있다”고 우려

● **北, 李대통령 ‘적십자대화 희망’ 비난(2/4, 노동신문; 2/3, 민주조선)**

- 북한 매체들이 ‘남북 적십자 간 대화 재개 추진’을 강력히 희망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라고 일제히 비난
- 노동신문은 4일 ‘대화 파괴자의 희떠운 노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한 정부가 “인도주의 문제를 들고 나오으로써 저들에게 북남관계 개선 의지가 있는 듯한 냄새를 풍기고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간 책임에서 벗어나 보려는 것”이라고 주장
- 민주조선도 3일 ‘어울리지 않는 대화 재개’ 제목의 논평에서 “북남 대화 재개문제를 통치위기 수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며 “적십자 대화 재개를 운운하기 전에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은데 대해 민족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

●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제57차 전원회의 개최(2/3, 평양방송)**

-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제57차 전원회의가 2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평양방송이 3일 보도, 회의에서는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결정서를 채택

● **北, 대의원선거, 체제강화 이정표(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월8일 실시되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남한의 국회의원) 선거(3.8)는 “대를 이어 걸출한 영도자, 희세의 정치 군사가를 모시고 승승장구해 가는 주체의 선군위업의 불패성을 과시하고 우리 공화국 정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는 데서 역사적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여
- 노동신문은 3일 ‘위대한 김정일 동지에 대한 천만군민의 절대적 신



뢰의 표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올해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매우 뜻이 깊은 흥하는 해”라며 이같이 주장

- 신문은 이번 선거를 통해 “세상이 열백번 변하고 천지풍파”가 닥쳐도 김정일 위원장을 따라 ‘선군혁명’을 하겠다는 의지와 위력을 “세상에 과시해야 한다”고 북한 군인과 주민들에게 거듭 강조

● 北매체들 연일 ‘군사충돌’ 위협(2/3, 노동신문; 2/1, 민주조선)

- 노동신문은 3일 ‘북남관계 개선을 반대하는 것은 최대의 민족반역 행위’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이명박 정부가 “북남관계를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는 “북과 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 재난을 불러오는 요인”이라고 주장
- 민주조선은 1일 ‘선언 존중의 외피마저 벗어던진 반통일 집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대결정책”으로 인해 “가뜩이나 최악의 파국상태에 놓인 북남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질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됐다”며 “삶의 보금자리인 우리 조국 강토가 참혹한 전쟁터로 될 수 있다”고 위협

● 北, 핵보유국간 핵군축 주장(2/2, 조선중앙방송)

-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2일 북미 간 “적대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현 조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려면 “핵무기를 보유한 당사자들이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총참모부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가진 문답 형식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가 북한의 핵 폐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한반도 핵 검증에 위해서는 남한도 검증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
- 그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비핵화는 “남조선에서의 핵무기 생산과 반입, 그 배비와 이용,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서 우리에게 가해지는 모든 핵위협에 대한 근원적인 청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조선반도 전역에 대한 비핵화”라며 “미국 핵위협을 청산하기 위한 남핵 폐기가 없는 한 우리의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북핵 폐기는 영원히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

● 조명록 5개월 만에 공식 등장(2/2, 연합)

- 지병으로 활동이 뜸한 편인 북한의 조명록(81) 군 총정치국장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약 5개월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냄.
- 그는 1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후보로 추대하기 위해 열린 ‘제333호 선거구’ 선거자대회에 김격식 군 총참모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정태근 군 총정치국 선전담당 부국장 등 고위 군간부들과 함께 참석, 북한 최



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선거는 3월 8일 실시

- 북한은 그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2007년 10월 인민무력부 부부장이던 김정각 대장을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에 임명해 그의 업무를 대행토록 했었음.

다. 경제 관련

● 北, 2010년 세계박람회 참가준비 진행(2/6, 조선신보)

- 북한이 세계박람회로는 처음으로 참가하는 2010년 중국 상하이(上海) 세계박람회(2010.5.1~10.31)를 앞두고 참가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6일 보도
- 북한의 박람회 사업을 주관하는 조선상업회의소는 2008년 11월 전람회장의 1천㎡ 규모 전람관을 임대하는 등 상하이박람회 조직위원회와 공식 참가계약을 맺었다고 신문은 보도, 상업회의소는 또 올해 초부터 전시방(전시장) 설계, '민족의 날' 행사 준비 등 실무작업을 유관기관과 연계해 본격 추진
- 북한은 '도시, 생활을 더욱 아름답게 하자'는 슬로건을 내건 상하이 세계박람회에 '대동강 문화에 토대하여 번영하는 평양'이라는 주제로 전람관을 꾸릴 예정, 전람관에서는 한반도의 첫 국가인 고조선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 그 옛 도시의 하나인 평양"이 현재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보여줄 것이라고 신문은 소개
- * 북한은 2007년 11월 세계박람회기구(BIE)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2010년 상하이 박람회를 통해 처음으로 세계박람회에 참가

● 美 대북지원식량 7차분 남포항 도착(2/4, 미국의 소리방송)

- 미국이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 50만t 중 7차 선적분 4천940t이 최근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4일 비정부 기구(NGO)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
- 이번 선적분은 당초 1월 19일 도착 예정이었지만 악천후로 중국 랴오닝(遼寧)성의 다롄(大連) 항에서 대기 중이었음. 이번 식량은 머시코, 월드비전, 사마리탄스 퍼스,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등 5개 미국 NGO가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25개 군에서 분배할 예정임.

● 北 이동전화 가입자, 6천명 획기적(2/2, NHK)

- 2008년 12월 북한에서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한 이집트 '오라스콤 텔레콤'의 사위라스 회장은 2일 NHK와의 인터뷰에서 "가입자는 6천명 정도가 됐다"며 "이는 획기적인 것"이라고 언급, NHK는 3일 사위라스 회장과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그의 이런 발언은 북한 정



권이 휴대전화 이용을 특권 계층만이 아니라 일반에도 개방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도

- 사위라스 회장은 또 “북한이 외국 기업에 휴대전화 사업을 개방한 것은 경제력을 강화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며 북한 정권이 통신 분야의 개발을 계기로 외자를 추가로 도입해 경제를 부양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

● 北, 김정일생일 공급품에 땅콩사탕 추가(2/3, 조선신보)

- 북한 당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16)과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4.15)에 어린이를 비롯해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당과류에 올해부터 땅콩사탕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조선신보가 3일 보도
- 조선신보는 이를 위해 지난해 당과류를 비롯한 밀가루 가공식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평양남새가공공장과 모란식료공장, 평천식료공장, 선교식료공장에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한 국가적 조치로” 땅콩사탕 생산공정이 새로 마련됐다고 설명

● 北쌀값 최근 크게 하락(2/2, 열린북한통신)

- 북한의 쌀 가격이 최근 대폭 하락했다고 대북 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대표 하태경)이 만드는 온라인 북한 소식지 ‘열린북한통신’이 2일 주장
- 소식지는 이날 “평양시와 평성, 남포, 신의주, 혜산, 청진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의 식량 가격이 지난달 중순 이후 평균 300~400원 하락했다”며 “그러나 이는 명목가격이며, 최근 중국 위안화 대비 북한의 환율이 10~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실질 하락폭은 더욱 크다”고 전언
- 1월말 현재 각지의 쌀 1kg 가격은 평양 1천700~1천800원(이전 가격 2천~2천100원), 평성, 순천 1천700원(2천100원), 신의주 1천660원(2천원), 혜산 1천800원(11월말 2천500원), 청진 1천800~1천900원(1월초 2천~2천500원)대임.
- 소식지는 가격 하락의 직접적 원인은 협동농장 농민들이 지난해 농사에 대한 분배를 1월에 받은 것을 최근 시장에 내다팔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때문에 매년 1, 2월엔 쌀값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
- 소식지는 한편 “북한 내각은 지난해 12월말께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가능한 한 식량으로 전환해 반입하라는 내부 지시를 내렸다”면서 북한이 이렇게 구입한 중국 쌀 500t을 지난달 8~9일께 신의주를 통해 처음 반입한 “이후 계속 외화를 쌀로 전환해 들여오고 있다”고 주장



라. 군사 관련

● **대포동2호, 무수단리로 이동(2/3, 연합)**

- 북한의 장거리 대포동2호(사정거리 6700km) 미사일 발사준비 움직임과 관련, 북한은 당초 알려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시험장이 아니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대포동 시험장으로 미사일을 옮긴 것으로 알려짐.
- 정부 소식통은 3일“미국의 정찰위성이 최근 평양 인근의 미사일 공장에서 대포동 2호 미사일의 로켓들로 추정되는 대형 원통형 물체들을 실은 열차가 이동한 장면을 포착했다”고 소개, 이 소식통은“이 열차는 동창리 시험장이 아니라 대포동 시험장으로 향한 것으로 안다”며 “이는 7,8년 전부터 공사를 해온 동창리 시험장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 국내외 언론은 이날 북한이 대포동2호 미사일을 동창리 시험장에서 발사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

마. 사회·문화 관련

● **정월대보름, 평양시내 천체망원경 설치(2/8, 조선중앙TV)**

- 정월대보름인 9일 북한의 평양시민들이 보름달을 잘 볼 수 있도록 평양시내 여러 곳에 천체망원경이 설치된다고 조선중앙TV가 8일 보도
- 조선중앙TV는 “올해의 정월대보름달은 지난 여러 해들에 비해 특별히 밝고 큰 보름달”이라며 “명절을 즐기는 수도의 근로자들이 쟁반같이 둥근달을 보다 선명하게 잘 보도록 하기 위해서 평양천문대와 대동강해맞이터, 모란봉을 비롯한 수도의 여러 곳에 천체망원경을 설치하게 된다”고 소개
- * 북한은 민속명절 가운데 설과 추석 외에도 2003년부터 정월대보름을 공휴일로 지정, 하루를 쉼.

● **北, 100만 명 치료 목표 구강재료 국산화(2/8, 조선신보)**

- 북한은 보건부에서 해마다 주민 100만 명의 치아를 치료할 수 있도록 구강재료의 국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8일 보도
- 송정영(65) 중앙구강병원 구강재료연구소장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외국산 구강재료에 의존해서는 한해 100만 명에 대한 봉사를 원만히 진행하지 못한다”며 “자체의 기술과 원료에 기초해 구강재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벌여 현재 80% 수준에서 목표가 실현되고 있다”고 언급, 송 소장은 연구소가 아직 수입에 의존하는 20%의 구강재료들도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올해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며, 2010년부터는 임상부문에 도입할 수 있다고 소개



● **백두산상 체육대회 개막(2/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7회 생일(2.16)을 맞아 열리는 '백두산상' 체육경기대회가 6일 평양 청춘거리 농구경기장에서 김종린 당 중앙위 비서, 박학선 체육지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평양과 삼지연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농구, 배구, 아이스하키, 스피드스케이팅 등 9개 종목이 치러짐.

● **北, 월북 만담가 申不出 만담집 출판(2/6, 조선신보)**

- 북한이 일제시대 최고의 만담가 신불출(申不出)의 만담을 모은 '신불출 만담집'을 출판했다고 조선신보가 6일 보도
- 신문은 만담집 출판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면서 김 위원장이 1995년 11월 11일 국립희극단의 공연을 관람하면서 신불출에 대해 회고한 바 있으며, 그때 "새로운 신불출을 많이 찾아 키울 데 대해" 말했다고 보도
- 신문은 또 고 김일성 주석도 해방 후 평양에 신불출 만담연구소를 만들어 신씨의 창작을 장려했고 "그의 창작과 무대 활동은 전후(6.25전쟁) 시기에도 중단함이 없이 계속되었다"며 김일성-김정일의 '각별한 관심'을 선전, 만담집의 저자인 송영훈(70) 평양연극영화대학 교수는 "(신불출을) 후대들에게 정확히 알려줘야 할 의무감과 책임감"에서 책을 집필했다고 언급
- * 신불출은 광복 후 조선영화동맹에 참여해 좌익 활동을 벌이다가 1947년 월북한 뒤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을 지내며 공로배우 칭호를 받는 등 정치적으로 성공했지만 1960년대 초 월북 문학가 한설야(韓雪野)가 '중파주의자', '북고주의자' 등의 죄목으로 숙청당할 때 함께 숙청된 것으로 알려짐.

● **北, 최우수 탁구선수에 김혁봉·김정 선정(2/6, 조선신보)**

- 북한 체육지도위원회는 2008년 최우수 탁구 선수로 4.25체육단 소속의 김혁봉(남)과 김정(여)을 선정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北, 바둑천재에 조대원을 소개(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첫 지능올림픽의 우승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 바둑계의 대표 주자인 조대원(20) 선수를 소개, 그는 2008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벌어진 제1회 월드마인드스포츠대회 바둑 아마추어 개인전에서 한국의 함영우 아마 7단을 꺾고 우승

● **北, 최우수권투선수로 김성국, 김향옥 선정(2/4, 조선신보)**

- 북한 체육지도위원회는 2008년 최우수 권투 선수로 평양시체육단의 김성국(남), 4.25체육단의 김향옥(여)을 선정했다고 조선신보가 4일 보도



● **北, 평양 가로등 현대화 한창(2/3, 조선신보)**

- 북한이 시내 건물을 개보수하고 도로를 정비하는 등 ‘평양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평양에서 가로등 현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3일 소개
- 신문은 북한 내각 도시경영성이 올해 평양시와 각 도 소재지의 하부구조 보수정비, 살림집 및 공공건물 개진보수, 수백만 그루의 나무심기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평양에서는 가로등 현대화를 연간사업으로 설정해 추진한다고 보도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관련

● **정부, 北미사용연료봉 구매에 신중(2/5, 연합)**

- 정부가 북한 핵시설 불능화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는 미사용연료봉 구매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정부는 1월 북한 영변의 관련시설에 대한 실사결과 남측에서도 가공을 거쳐 이 연료봉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북측이 국제 천연우라늄시세를 크게 상회하는 천문학적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임.
- 외교 소식통은 5일 “북한이 실사단 방북기간 미사용연료봉의 가격을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실사단은 가격협상을 하려 간 게 아니라 연료봉의 상태 등을 보러 간 것이기 때문에 가격과 관련한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언급
- 이 소식통은 북한이 제시한 가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우라늄을 연료봉으로 가공한 비용까지 미사용연료봉 가격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짐. 하지만 우리측은 북한의 미사용연료봉을 남측의 원자력발전소 원료 등으로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잖은 비용을 들여 연료봉을 다시 우라늄으로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만 따진다면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해야 한다는 생각임.
- 북한이 보유한 미사용연료봉은 1만4천800여개로, 5MW 원자로용 2천400여개, 50MW 원자로용 1만2천400여개에 이룸. 이는 우라늄으로는 101.9t에 해당되며 현 국제시세로 1천100만 달러 안팎임.

● **6자 안보실무회의 19-20일 러시아 개최(2/2, 외교통상부)**

- 북핵 6자회담 산하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회의가 19~2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다고 외교통상부가 2일 발표, 이번 실무회의는 2007년 7월에 2차회의가 열린 이후 1년6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으로, 러시아가 초안을 마련해 회람시킨 ‘동북아평화안보 기본 원칙’의 채택이 추진됨.



나. 북·미 관계

● 北관리, 美단체 초청 2월말 방미(2/7,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정부관리들이 미국 대북지원단체의 초청으로 2월말 미국의 동남부와 서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
- 방송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조(북)·미 민간교류협회(KAPES)에 소속한 북한 정부관리 4명이 5개 미국 비정부 구호 단체들의 초청으로 2월 말에 미국 동남부와 서부를 방문한다"고 밝힘. 북한 관리들을 초청한 단체는 현재 대북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머시코, 월드비전,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사마리탄즈 퍼스, '조선의 기독교 친구들' 등임.
- 소식통은 "북한 관리들이 2월 말 8일간 미국 단체들의 본부가 있는 서부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와 워싱턴주의 페더럴, 남부 조지아주의 아틀랜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분, 뉴욕 등을 방문한다"고 언급, 그는 "북한 관리들은 이 기간에 미국의 식량 지원이 합의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지원 기한이 끝나는 올해 6월 이후에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 식량을 계속 지원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언

● CIA국장, 北, 2006년 핵무기 폭발실험(2/6, 연합)

- 리언 파네타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가 5일 북한이 지난 2006년 '핵무기(nuclear weapon)를 폭발시켰다'며 북한의 핵무기 폭발실험을 공식 인정
- 미국 정부는 그동안 지난 2006년 10월9일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은 핵무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핵장치(nuclear device) 폭발 실험'으로 규정하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해왔음.
- 그러나 최근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와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JFC)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무기보유국'으로 언급하고,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에서 북한이 이미 여러 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음.
- 파네타 지명자는 이날 상원 정보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서면자료를 통해 "북한이 지난 2006년 핵무기를 폭발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언급, 2006년 10월 북한이 실험한 것이 단순한 '핵장치'가 아니라 '핵무기(nuclear weapon)'임을 명확히 하였음. 그러면서 파네타 지명자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능력을 일단, 혹은 영원히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언급
- 파네타 지명자는 북한을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과 함께 미국의 철저한 정보활동이 필요한 '중요한 지역'으로 꼽음.



- **김정일, 오바마 정부 향후태도 지켜보겠다(2/4, 교도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월 23일 방북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당 대외연락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정부와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교도통신이 4일 보도
 -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왕 부장과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이 화제로 오르자 미-북한 관계를 염두에 둔 것처럼 “지켜보고 싶다”라고 언급, 그러나 김 위원장은 오바마 정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다고 전언

- **오바마, 북핵, 검증 가능한 제거를(2/3, 백악관 대변인)**
 - 버락 오바마(Obama) 미국 대통령은 3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 핵 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제거’를 실현하기 위해 6자 회담과 (한미) 동맹관계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로버트 기브스(Gibbs) 미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
 - 오바마 대통령은 또 “최근 일련의 상황을 살펴볼 때 6자 간 공조를 철저히 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보여준 통찰력이 소중한 교훈이 됐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 새 행정부가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언급

- **美, 미사일 관련 3개 北기업 제재발표(2/3, 미 연방관보)**
 - 미국 정부는 3일 미사일 및 관련기술 거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활동에 개입해온 북한의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 등 3개 회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부과기로 했다고 밝힘. 3일 미 연방관보에 따르면 국무부는 미사일 및 관련 기술 거래에 개입해온 것을 이유로 무기수출금지법 등에 근거, 북한의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 모공(Mokong)무역회사, ‘시노-키(Sino-Ki)’ 등 3개 회사와 중국의 2개회사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힘.
 - 국무부는 또 WMD 확산에 개입한 일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KOMID, 목송(Moksong)무역회사, ‘시노-키’ 등 3개 회사와 이란의 사히드 바케리 인터스트리얼 그룹(SBIG)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공시
 - 미사일 관련 제재대상인 북한의 모공(Mokong)무역회사와, 확산 관련 제재대상인 ‘목송(Moksong) 무역회사’는 같은 기업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제재대상 기업들은 물론 자회사 및 이들을 인수하는 회사들은 향후 2년간 미국 정부기관의 각종 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현재 진행 중인 계약은 종료되며, 이들 기업들의 제품·기술·서비스의 대미수출은 전면 금지됨.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제재대상기업



이라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어 대외활동에 적잖은 제약을 받게 됨.

● **美, 北미사일실험 도움 안되는 도발(2/3, 미국무부, 미국방부)**

-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3일 북한이 최근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징후가 포착된 것과 관련, 유엔안전보장회의사의회의 결의안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시
- 특히 국무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도움이 안 되며 솔직히 도발적인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밝힘.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 움직임에 대해 “정보사항에 논평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활동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그 지역(동북아)에 우려가 되고 있다”고 언급
- 그는 또 유엔안전보장회의 결의안 1718호에 의해 북한의 미사일 관련 활동은 금지돼 있다고 강조
- 이와 함께 국방부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에 의한 미사일 실험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국무부와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힘. 하지만, 백악관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실험 움직임에 대해 특별한 논평을 하지 않음.

● **北, 美에 대화냐 전쟁이나 밝혀라(2/3,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 민주조선은 3일 ‘대화와 전쟁은 양립될 수 없다’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을 통해 그동안 북미 간 대화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근본원인은 “속에 칼을 품고 우리(북)를 해칠 기회만 노리는 미국 때문”이라며 “대화와 전쟁”가운데 택일할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다. 북·중 관계

● **中, ‘대북 무상원조’ 공식 확인(2/5, 연합)**

- 중국은 자국이 북한에 무상원조를 제공기로 한 사실을 5일 공식 확인,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수년째 중국 정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북 무상원조를 계속해왔다”면서 “이는 북한 인민들이 경제난을 극복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이뤄져 온 것”이라고 언급
- 장 대변인은 그러나 무상원조의 성격이나 품목, 규모, 제공 시기 등을 묻는 질문에는 “추가로 제공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낀.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중국 정부가 북한에 무상원조를 제공하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보도



● **北, 中, 대북 무상원조 제공 결정(2/4, 조선중앙통신)**

- 중국 정부가 북한에 무상 원조를 제공하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4일 보도, 통신은 이날 “최근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가 조선(북한)에 무상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며 “중국 정부의 무상원조 제공은 강성대국 건설을 다그치고 있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고무로 될 것”이라고 보도, 그러나 통신은 중국의 무상 원조 품목이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음.

라. 북·러 관계

● **中왕자루이, 北지지, 영원히 잊지 않을 것(2/7, 평양방송)**

- 중국 공산당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은 중국이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북한이 보내준 지지와 도움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평양방송이 7일 보도
- 왕 대외연락부장은 지난 5일 설에 즈음해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가진 연회에 참석, “중국인민이 제일 중시하고 관심하는 문제에서 중국의 방조(도움)와 지지가 제일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당신들의 힘있는 목소리와 따뜻한 도움의 손길, 역센 힘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방송은 보도

마. 북·일 관계

● **北, 日 대북 적대정책 극한 도달(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군국주의 독을 내뿜다가는 제명을 못산다’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일본에선 최근 고객이 돈을 예금할 때 북한에서 받은 돈인지를 은행 측이 물어본다며 일본의 “대북 적대 정책이 극한점에 이르고 있다”고 비난

바. 기타외교 관계

● **최태복, 英의회대표단 면담(2/5, 조선중앙통신)**

-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방북 중인 상원 의원 데이비드 알톤 영국-북한 ‘제 정당 의원단’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영국 의회대표단을 만나 환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英 의회대표단 회담(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과 방북 중인 영국 국회대표단 간 회담이 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회담에는 북한 측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리중혁 북-영친선의원단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영국 측에서 상원의원인 데이비드 알톤 영국-북한 ‘제 정당 의원단’ 위원장을 단



장으로 하는 국회 대표단과 피터 휴스 북한주재 영국대사가 참가
- 회담에서는 “두 나라 의회들 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해서와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
다고 통신은 보도, 영국 국회대표단은 3일 방북

● **인도 공화국의 날(1.26) 기념연회 개최(2/4, 조선중앙통신)**

- ‘인도 공화국의 날’(1.26)에 즈음해 질레 싱 북한주재 인도대사가 4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연
회에는 리룡남 무역상, 조선-인디아친선협회 위원장인 김병팔 조선
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영일 외무성 부상, 전영진 대외문
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김창광 조선중앙통신 부사장과 주북 각국
외교대표, 국제기구 대표들이 초대

● **북한과 기니의 외교관계 수립 40돌 기념 축전(2/4, 조선중앙통신)**

- 박익춘 외무상은 북한과 기니의 외교관계 수립 40돌을 맞아 1월28일
파스토르 미차 온도 빌리 기니 외무·국제협조 및 프랑스어 사용국
장관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

● **유럽의회, 北에 남북관계 개선 주문(2/4, 자유아시아방송)**

- 글린 포드 유럽의회 의원은 최근 영국을 방문한 북한 노동당 대표단
을 만나 남북관계 개선을 주문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
- 북한 대표단을 초청한 포드 의원은 이 방송과 전화인터뷰에서 북한
의 최근 조평통 성명 등과 관련해 북한 대표단에 남북 간 긴장상황
을 해소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답변
- 그는 또 오는 3월 유럽의회 의원 3-6명으로 대표단을 구성,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번 방북을 통해 남북 간 긴장 해소와
북핵 6자회담에 북한이 적극 임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유럽과 북한
간의 정치·사회적 교류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포드 의원은 지난 8년간 유럽연합 국가들이 북한에 제공한 인도 지
원과 경수로 건설 지원, 소규모 개발 지원이 5억 유로에 달한다며,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北, EU와 대화 재개 희망(2/3, 자유아시아방송)**

- 1월 27일 영국을 방문한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유럽연합(EU)과 관
계 개선을 희망하면서 조력발전 기술의 전수 등을 EU에 요청했다
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
- RFA에 따르면 박경선 당 중앙위 부부장을 단장으로 과학자도 포
함된 노동당 대표단은 지난주 영국에 도착해 영국 외무부 관리와
‘북한통’인 글린 포드 의원 등 유럽의회 의원들을 면담, 2005년 단
절된 북한과 EU간 대화 재개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양측은 2005년 EU가 대북 인권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한 이후 대화가 단절됐음.
- 북한 대표단은 또 EU에 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전을 요청하면서, 북한 해상의 간만의 차가 큰 점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의 전수를 요청했다고 포드 의원실 관계자는 전언

- **北김정일, 반기문 총장에 연하장(2/3,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등 각국 지도자들에게 연하장을 보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이 3일 보도
 - 북한 매체들은 그러나 반 총장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은 채 ‘유엔 사무총장’이라고만 밝혔고, 그 순서도 아프리카동맹위원회 위원장 등 단체장이나 모스크바 시장 등과 함께 묶어 처리

3. 대남정세

- **통일부, 北화폐 살포 수사의뢰 통보(2/4, 연합)**
 - 통일부가 4일 북한 돈 5천원 짜리를 대북 전단에 동봉해 살포할 계획인 최성용 남북자가족모임 대표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에게 살포를 강행할 경우 남북교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을 통보
- **통일부, 남북언론단체 기사교류사업 불허(2/4, 연합)**
 - 4일 통일부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언론본부)’에 따르면 언론본부는 6.15 북측위 언론분과위원회와의 기사교류 사업을 위해 통일부에 ‘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 신청을 했지만 지난달 30일 불허 통보를 받음.
 - 정부 당국은 불허 사유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적시, 정부 당국자는 불허 배경에 언급, “순수한 의미의 기사교류를 막으려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남북 단체들이 추진하는 기사교류 방식으로 미뤄 기사교류가 북한이 대남 메시지를 전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봤다”고 언급
 - 6.15 남측위 언론본부는 2008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제4차 남북언론인 대표자회의에서 언론본부 홈페이지인 ‘통일언론’과 북측 ‘우리민족끼리’의 인터넷 매체 및 전자우편 등을 활용해 기사·논평·사진·영상 등을 교환하기로 합의
- **민간단체들, 北민화협과 지원사업 협의(2/2, 연합)**
 - 민간 대북 지원단체 56개의 연합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



민협·회장 정정섭’는 1,2일 중국 선양에서 북한의 민화협 관계자들과 만나 올해 대북 농업분야 협력사업과 식량지원 문제를 논의

- 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북민협의 총무인 권용찬 국제기아대책기구 사무총장은 3일 북민협과 민화협이 올해 대북지원 사업에 관한 정책조정을 강화하고 지난해 대북 지원이 중단됐던 못자리용 비닐박막의 지원을 재개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힘.

● 北체육후원기금 “월드컵 최종예선 후원” 호소(2/3, 조선신보)

- 남·북한 축구 월드컵 대표팀이 4월 1일 서울에서 맞붙을 예정인 가운데 해외동포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조선체육후원기금’이 월드컵 등 올해 국제경기에 출전할 북한팀에 대한 후원과 관심을 호소
- 조선신보는 3일 이 기금이 “자기 나라(북한) 선수들이 올해의 국제 경기들에서 더 많은 메달을 획득할 것을 기대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 가운데 “최대의 관심사는 역시 2010년 남아프리카월드컵 본선 참가 자격을 위한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경기”라고 지적, 조선신보는 “체육기금은 선수들에게 축구화, 경기복, 훈련복을 비롯한 체육 기자재들과 피로회복에 필요한 영양식품, 의약품을 제공하는 협조사업에 주력하고 있다”며 “여기에 국내외의 여러 단체, 인사들이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언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 6자회담 재개 우선순위 결정해야” <FT> (2/6)

-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이 진퇴양난의 지경에 빠졌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6자회담 재개에 대해 외교정책상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음.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 ‘평양의 권투선수’(Pyongyang pugilist)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시아 순방을 앞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굉장한 ‘환영’을 준비 중”이라고 꼬집었음.
- 사설은 2006년 10월의 핵실험을 상기시키면서 “평양의 돈키호테적 독재정권이 군사 ‘불꽃놀이’를 통해 관심을 끌려고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음.
- 사설은 “북한이 이란 핵개발, 중동평화, 아프가니스탄, 인도-파키스탄 긴장 등의 이슈와 더불어” 미국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6자회담의 재개를 외교정책 우선순위 가운데 어디에 놓을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음. 사설은 또 “김정일 위원장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북한 정권의 위협에 ‘보상’을 주는 셈이 되고 이를 무시한다면 북한이 핵 능력을 완전히 개발하도록 시간을 주는 셈”이라고 해 미국이 진퇴양난의 지경에 빠졌음을 지적했음.
- 사설은 어떻게 이러한 두 가지의 ‘좋지 않은’ 옵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6자회담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때때로 중국이 한반도의 핵무장보다 ‘불안정’을 더 두려워한다는 인상을 주는데 이는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북한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6자회담 참가 5개국의 공조를 역설했음.
- 사설은 끝으로 북한이 (핵 폐기 및 검증) 합의에는 관심 없다는 의심이 남는다면 “미국은 어떻게 북한과 대화해야 하고, 자기 방식대로 대화해야 한다”라며 “그에 앞서 이를 놓고 중국과 대화해야 한다”고 충고했음.

● 외교부 “北, 핵무기보유국 될 수 없어” (2/6)

- 외교통상부는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가 북한이 과거 ‘핵무기 폭발실험’을 했다고 언급함으로써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상 북한은 핵보유국이 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국을 비롯해 6자회담 참가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NPT 체제상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없음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도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 문 대변인은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그동안 ‘핵폭발 장치’와 ‘핵무기’란 표현이 일반적으로 혼용돼 왔다”면서 “핵폭발 장치 대신 핵무기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거나 나아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등의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리언 파네타 CIA 국장 내정자는 5일 상원 정보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서면자료를 통해 “북한이 지난 2006년 핵무기를 폭발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해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 이에 앞서 미 국가정보위원회(NIC)와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JFC)도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무기보유국’으로 언급했고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에서 북한이 이미 여러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밝히기도 했음.

● CIA국장 “北, 2006년 핵무기 폭발실험”(2/6)

- 리언 파네타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가 5일 북한이 지난 2006년 ‘핵무기(nuclear weapon)를 폭발시켰다’며 북한의 핵무기 폭발실험을 공식 인정했음.
- 미국 정부는 그동안 지난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은 핵무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핵장치(nuclear device) 폭발 실험’으로 규정하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해왔음. 하지만 파네타 지명자의 이 같은 언급은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 또 최근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와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JFC)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무기보유국’으로 언급하고,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에서 북한이 이미 여러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밝힌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이 발언은 미국이 국가전략 및 외교정책목적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 파네타 지명자는 이날 상원 정보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서면자료를 통해 “북한이 지난 2006년 핵무기를 폭발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06년 10월 북한이 실험한 것이 단순한 ‘핵장



- 치가 아니라 ‘핵무기(nuclear weapon)’임을 명확히 한 것.
- 파네타 지명자는 그러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능력을 일단, 혹은 영원히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는 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네타 지명자는 북한을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과 함께 미국의 철저한 정보활동이 필요한 ‘중요한 지역’으로 꼽았음.
 - 파네타 지명자의 이날 발언은 지금까지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평가와도 다른 것.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북한은 수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다거나 핵무기 1~2개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식으로 언급해왔음.
 -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북핵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한미 양국간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공유가 우선돼야 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북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 엘바라데이 “북핵 확증없어 조치 못해”(2/3)

-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IAEA가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늦어지긴 했지만 미국과 이란간의 신뢰 관계 회복과 직접 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2일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최근 다보스포럼 행사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란 핵문제가 기술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이 있는데 기술적 측면은 IAEA의 역할이지만 정치적 측면에선 미국과 이란간의 충돌로 지금까지 조금도 진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그는 이란 핵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지적과 관련, “사람들이 IAEA를 핵문제 해결의 신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IAEA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며 이란의 핵 개발 실상을 파악하고 이란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왔다”고 해명했음.
- 그는 시리아와 북한의 원자로 건설 등 핵프로그램에 대해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국제적인 비판이 일고 있는데 대해 “시리아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우리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증거가 있었다면 24시간내 즉각 대응에 나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엘바라데이는 “미국이 이란을 ‘당나귀’로 취급해선 안된다”며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싶어 하고 자국의 안보 유지 차원에서 핵개발을 서두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당근과 채찍’ 정책으로 이란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미·북 관계

● 美전문가들 “北, 北美 양자협상 선호”(2/7)

- 미국의 거물급 북한 전문가들은 방북 일정을 마치고 7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북단의 일원인 조너선 폴락 미국 해군대학 교수는 이날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북핵 6자회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만 다자 협상보다는 북·미간 직접 대화를 선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 폴락 교수는 “이번 방문에서 북한 외무성과 무역성, 인민군 등 북한의 각 기관의 고위관리와 만나 10여회에 가까운 회담을 벌였다”고 소개하고 “북한이 북핵 6자회담에서 급격한 진전이나 조속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 않아 보였고 어쨌든 북한은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두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현재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았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방북의 의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북한 관리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대사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기다려 보라”고 말하면서 추진 사실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그는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추진에 우려를 표명했지만 북한 관리들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은 우리에게 기다려보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아무런 위협도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보즈워스 전 대사는 “북한은 미사일 이슈를 평범하고 일반적인 이슈로 다루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고위 관리들과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핵 불능화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보즈워스 전 대사는 “우리는 북한이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재고하는 것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느꼈다”면서 “그들은 인내심을 표명했고 경고성 메시지나 조급해 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 그는 북한과 오바마 행정부와의 양자협상 개시 가능성에 언급, “오바마 정부가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피할 이유가 없다”면서 “북한 역시 6자회담과 북·미간 양자 협상을 모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와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이들은 이달 말 8일간 미국 단체들의 본부가 있는 서부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와 워싱턴주의 페더럴, 남부 조지아주의 아틀랜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분, 뉴욕 등을 방문한다”고 말했다.

- 그는 “북한 관리들은 이 기간에 미국의 식량 지원이 합의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지원 기한이 끝나는 올해 6월 이후에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 식량을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 조지아대 부설 국제문제 연구소 소장인 박한식 교수도 이달 말께, 북측 인사들을 초청해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또는 남북 간 현안 해결을 위한 학술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북한 관리들은 미국 단체들의 초청으로 방문해 이 행사에도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北, 7년연속 기독교박해국 1위” <美단체>(2/6)

-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 도어즈’는 지난해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한 나라로 북한을 선정, 7년 연속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뽑았음. 오픈 도어즈는 지난 3일 발표한 국가별 기독교 탄압실태 보고서(2009 세계감시목록)에서 “북한 정부 아래에서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박해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보고서는 북한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몰디브를 주요 기독교 탄압국으로 꼽았음. 예멘, 라오스, 에리트레아, 우즈베키스탄도 ‘10대 탄압국’에 포함됐음. 보고서는 오픈 도어즈가 접촉하는 국가별 현지인과 활동가, 기독교인 등을 상대로 종교적 자유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한 50개 문항을 포함해 심층조사한 결과를 취합한 것.
- 이 단체의 칼 뮐러(Carl Moeller) 회장은 “북한이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이라는 건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다가오는 ‘북한 자유 주간’(4.25~5.2)에 탄압받는 북한 신자들을 돕기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음.
- 뮐러 회장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도 “북한에서 기독교 신자들은 체포와 고문, 처형 등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현재 북한에 기독교 신자 4명 중 1명이 강제수용소에 수감돼 있으며, 그 수는 5만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주장했음. 오픈 도어즈는 매년 전세계 기독교인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사회적 차별과 박해 정도를 조사해 최악의 50개국을 선정한 ‘세계 감시 목록’(World Watch List)을 발표하고 있음.

● “美NGO, 오바마에 北인권 서한”(2/6)

- 미국 비정부기구(NGO)인 ‘북한인권위원회’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

- 이 단체는 지난달 27일 보낸 서한에서 작년 연장된 북한인권법의 성실한 이행과 북한인권특사 지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펼칠 것을 요청하고, 국제사회가 탈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할 것을 당부했다고 VOA는 전했다.
- 위원회는 특히 북한 정치범수용소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적십자사 등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전달 노력을 확대하고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이 취약계층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감시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서한이 “미 의회와 협의해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 리처드 알렌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스티븐 솔라즈 전 하원 아·태 소위원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은 이 단체에는 제임스 릴리 전 주한대사, 앤드류 나치오스 전 국제개발처장,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다수의 북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음.
- VOA는 또 세계 70여개 인권단체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이 최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동아시아 4개국 순방에 앞서 북한 인권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미·북 간 양자·다자 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반드시 제기돼야 하며 대중국 외교에서도 탈북자 강제복송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클린턴 장관이 방일 중 납북자 가족을 만날 것을 제안했음.
-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의장은 2004년부터 매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고 있는 ‘북한자유주간’ 행사와 관련,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새삼 알리는 차원에서 올해 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 “美, 北미사일 발사 대비” <태평양사령관> (2/6)

-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준비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미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일련의 대비책을 준비해 놓고 있다고 미 태평양군사령관이 5일 밝혔다. 티머시 키팅 사령관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이 미사일을 쏠 지 안쏠 지 모르겠다”면서 “많은 다른 기관들과 주변국들과 함께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키팅 사령관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통령이 대응할 것을 지시하면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들이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준비를 보도하고 있는 데 대해 “공개된 소스를 통한 보도들이 우리가 얻은 정보들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덧붙였다.



● “작년 풍작 불구, 北식량문제 계속될 듯”(2/6)

- 북한은 작년에 최근 몇년 이래 최대의 풍작을 거뒀지만 올해에도 식량사정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채 식량부족으로 인한 고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5일 주장했다.
- 북한은 작년에 식량생산량이 늘긴 했지만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최악의 식량난에 대처하느라 재고식량이 고갈됐고 심지어 군량미까지 방출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군량미 재비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가용식량이 많지 않아 주민들의 식량부족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임.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과 UC 샌디에고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5일 하와이 동서센터가 발간하는 ‘아·태 소식지’에서 북한의 식량문제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음. 두 저자에 따르면 세계식량기구(FAO)는 2008-2009 곡물연도 북한의 식량생산량을 343만t, 미국 농무부는 311만t, 한국의 농촌진흥청은 431만t으로 각각 추정하고 있음. 여기에다가 북한의 올해 식량수입 규모가 20만t, 외부식량지원분이 20만~50만t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돼 전체적으로 북한이 가용한 식량규모는 380만~500만t이라는 것.
- 이에 반해 북한 주민들의 최소식량요구량은 315만t, 사료용 등을 포함한 전체 최소 식량요구량은 434만t으로 추정되고 있어 올해 북한은 북한 주민들이 먹고사는 데 꼭 필요한 최소요구량보다 전체 규모에서 약간 남아돌게 될 것이라고 두 저자는 밝혔다.
- 하지만 작년에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으면서 재고식량이 바닥났고, 올해 잉여식량을 작년에 식량위기 해소를 위해 방출한 군량미를 우선적으로 채우는데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식량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두 저자는 지적했다.
- 여기에다가 북한의 분배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돼 지역간, 사회경제계층간 식량배급 격차가 크고, 외부의 식량지원이 대폭 줄어들고, 국제 곡물가 인상으로 북한의 식량구매능력도 크게 떨어져 식량문제는 북한당국에게 계속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두 전문가는 전망했음.

● “北주민 식량지원 사실 제대로 몰라”(2/6)

-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은 북한이 외부로부터 식량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지난해 11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 외부의 식량지원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음. 또 식량지원 사실을 알고 있는 설문자 가운데 지원식량이 군대와 당·정 관계자들에게 지급됐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96.1%에 달한 반면, 주민들에게 배급됐을 것이라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고 이



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이 5일 주미 한국대사관의 코러스하우스에서 가진 강연을 통해 밝혔다. 설문대상 탈북자들의 71%는 북한에서 기아에 시달린 적이 있으며, 33%는 자신들의 가족 구성원이 굶주림 끝에 사망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 북한에 거주할 당시 구금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46.6%의 응답자가 보위부 또는 안전부에 끌려가 별다른 재판절차없이 갇힌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처형(51%), 고문에 의한 사망 및 구타(27%), 영아살해(7%) 등을 주변에서 경험한 적이 있다는 대답이 나왔다.
- 놀랜드 연구원은 북한의 암울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며, 유엔과 국제적십자사의 북한 수용소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을 종식시키는데 기여한 ‘설리번 원칙’ 같은 민간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원칙이란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에 대해, 흑인출신 리언 설리번 목사가 미국 기업에 대해 남아공과의 무역이나 거래를 못하도록 촉구한 정책임.
- 놀랜드 연구원은 “탈북자들이 정착을 희망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중국 순으로 조사됐다”며 “그러나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일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면 중국에 잔류하려는 탈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北방송 “北·美관계는 美태도에 달려”(2/5)

- 북한의 대외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은 5일 “앞으로 조(북)·미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여하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평양방송은 이날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 압살 기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달 미 의회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테러방지위원회’가 보고서에서 “힘에 바탕을 둔 직접적 북핵 외교”를 강조한 것은 “대조선 군사적 강경정책을 보다 강화하려는 미 호전세력들의 기도를 드러내 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방송은 또 “대화는 정세의 완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긴장 격화는 조·미 적대관계를 군사적 충돌 계선으로 이끌어갈 뿐”이라며 “지금까지 계속된 조미 대화와 6자회담은 대결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 방송은 “미국이 대화의 막뒤에서 힘으로 우리를 어찌보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라며 “미국이 대조선(북한) 적대시 압살정책을 강화하면 할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을 자위적 국방력 강화로 더욱 떼미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라며 북미 간 대화를 강조했다. 방송은 이어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버리지 않고 “지금처럼 대결관계를 극한점으로 몰아간다면 미국에 불리한 정세만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등을 포함해 대북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는 시점에 성사되는 민간부문 북한 전문가들의 잇단 방북은 양국 정부의 입장을 비공식적으로나마 교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됨.

● “오바마, 빠른 시일내 北과 대화해야”(2/5)

- 새로 출범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관계개선 기회를 잃지 않으려면 조속한 시일내 미국에게 북한이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가가 4일 조언했음. 아시아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가진 자신의 저서 ‘중국의 부상과 두개의 한국’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음.
-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난 1998년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 관계개선을 시도, 2년이 지나서야 조명록 북한군 총참모장이 방미하는 등 북한의 반응을 끌어냈으나 결국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바람에 북미관계개선으로 연결짓지 못한 사실을 상기시켰음. 그러면서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미관계개선을 위해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북미관계개선을) 일찍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스나이더 연구원은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중동특사와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 특사는 임명한 반면에 아직 북한 특사는 임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북한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 고위직 인사를 대북특사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음.
- 그는 한미관계와 관련, 최근 수십년간 한미 두 나라는 통치자들의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며 효과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강화해왔다면서 오바마 정부와 이명박 정부간 공통점을 발견하는 게 양국 국익 및 협력을 위해 중요하다고 밝혔음.

● “北, 이명박정부 겨냥 ‘허세’ 과시”<WP>(2/5)

- 북한이 비방공세에 이어 남북간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미사일 발사준비를 하는 등 ‘허세’를 부리고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대북지원을 중단한 한국의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4일 보도했음.
- 신문은 작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년간 전임 정권에서 북한의 핵무기·미사일확산·인권문제를 따지지 않고 북한에 식량·비료·무역특혜 등을 제공했던 ‘햇볕정책’을 끝냈다면서 이 때문에 북한은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로부터는 사실상 지원을 받지 못해 적어도 북한 지도부내에서 신경이 곤두선 것 같다고 전했다.
- 포스트는 이어 북한은 소란스럽고 상식을 벗어난 ‘벼랑끝전술’을 통해 외교를 펼쳐온 역사가 있다면서 북한은 2006년 10월 핵실험을 실시한 뒤 식량과 연료지원, 제재 완화 등을 대가로 영변핵시설 불



능화를 시작했다고 상기시켰음.

-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이런 공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북정책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최근 이 대통령은 북한의 공세를 ‘특이한 게 아니다’며 일축했다고 포스트는 소개했음.
- 일본에서 활동하는 친북계 단체인 조총련 간부는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로 하여금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두 차례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무역과 식량지원 합의를 준수하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포스트는 전했다. 포스트에 따르면 이 간부는 “한국이 정상회담 합의를 지키지 않는 데 대해 북한 군부가 매우 화가 나 있다”면서 “(남북정상합의를) 거부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미국은 이런 메시지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北, 美 외교 우선순위 밀려 소란<타임>(2/4)

- 북한은 중동 및 아프가니스탄에 취임 초 외교력을 집중한 오바마 미 행정부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서 자신들이 뒷전으로 밀렸다고 생각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미국의 시사주간 타임이 분석했음. 타임은 3일 인터넷판 기사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북한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 타임에 따르면 북한이 올봄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북한이 남한과의 군사·정치적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선언한 것 등은 북한이 한국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 자신이 견재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됨.
- 타임은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의 분석을 인용해 북한의 도발적인 움직임이 ▲남북관계 긴장을 조성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 ▲이명박 정부에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려는 의도 ▲오바마 미 행정부의 외교정책에서 뒷전으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음.
- 특히 송 소장은 타임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북·미 대화 이전에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클린턴 국무장관의 발언을 좋아하지 않았다”며 “북한은 미국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서 자신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한국정부를 제치고 미국과 이른 시일 안에 신속히 직접 대화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 타임은 오바마 정부가 지금까지 직접대화의 뜻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클린턴 장관은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가볍게 보는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하고,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북한이 워싱턴의 관심을 받으려고 얼마나 소란을 피울 것인지 지켜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 샤프 사령관은 또 최근 한국이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군사적 측면, 혹은 현지 경찰 훈련이나 지방재건팀 등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든 한국이 아프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美 대북지원식량 7차분 남포항 도착(2/4)

- 미국이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 50만t중 7차 선적분 4천940t이 최근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4일 비정부 기구(NGO)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 이번 선적분은 당초 지난 달 19일 도착 예정이었지만 악천후로 중국 랴오닝(遼寧)성의 다롄(大連) 항에서 대기 중이었음. 이번 식량은 머시코, 월드비전, 사마리탄스 퍼스,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등 5개 미국 NGO가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25개 군에서 분배할 예정.

● 美, 미사일.WMD확산관련 3개 北기업 제재발표(2/4)

- 미국 정부는 3일 미사일 및 관련기술 거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활동에 개입해온 북한의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 등 3개 회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부과기로 했다고 밝혔다. 3일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국무부는 미사일 및 관련 기술 거래에 개입해온 것을 이유로 무기수출금지법 등에 근거, 북한의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 모공(Mokong)무역회사, ‘시노-키(Sino-Ki)’ 등 3개 회사와 중국의 2개회사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WMD 확산에 개입한 일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KOMID, 목송(Moksong)무역회사, ‘시노-키’ 등 3개 회사와 이란의 사히드 바케리 인터스트리얼 그룹(SBIG)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 미사일 관련 제재대상인 북한의 모공(Mokong)무역회사와, 확산 관련 제재대상인 ‘목송(Moksong) 무역회사’는 같은 기업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발표는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및 대량파괴무기(WMD) 확산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됨.
- 특히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첩보가 속속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제재가 나와 주목됨. 국무부는 그러나 관보에선 이들 기업들이 어떤 활동을 벌여 미국내 관련법을 위반했는 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음.
- 제재대상 기업들은 물론 자회사 및 이들을 인수하는 회사들은 향후 2년간 미국 정부기관의 각종 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현재 진행 중인 계약은 종료되며, 이들 기업들의 제품·기술·서비스의 대미 수출은 전면금지됨.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제재대상기업이라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돼 대외활동에 적잖은 제약을 받게 됨.

- 북한의 주요 무기거래회사로,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및 장비의 주요수출회사로 지목되고 있는 KOMID는 지난 1992년, 1998년, 2000년, 2003년, 2007년 1월, 2007년 8월, 2008년 8월에 이어 8번째 제재대상에 포함됐음.

● “北, 상호주의 대북정책 포기겨냥”(2/4)

-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발사실험 준비는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을 온건기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압력을 가속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며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상호주의 대북정책 포기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음.
- 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3일 북한의 최근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실험 준비 징후와 관련, 이같은 북한의 호전적인 공세 수위 강화는 “이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상호주의와 투명성 요구를 포기하도록 하는데 우선적으로 맞춰져 있다”고 밝혔음.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에 성공한다면 미국과 아시아 우방의 안보위협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음.
- 북한의 1998년과 2000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은 실패하고 2006년 핵실험도 부분적인 성공에 그쳤지만 이론적으로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 있는 발사실험 성공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줄어들고 있다는 인식을 바꾸게 만들 수도 있다고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분석했음.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새로 출범한 오바마 미 행정부에 대해 핵협상에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겠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음. 그렇지만,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실제로는 강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음.

● 美 “北미사일실험 도움안되는 도발”(2/4)

-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3일 북한이 최근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징후가 포착된 것과 관련, 유엔안전보장회의사의 결의안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시했음. 특히 국무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도움이 안 되며 솔직히 도발적인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음.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 움직임에 대해 “정보사항에 논평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활동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그 지역(동북아)에 우려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음. 그는 또 유엔안전보장회의 결의안 1718호에 의해 북한의 미사일 관련 활동은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국방부도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에 의한 미사일



실험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국무부와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실험 움직임에 대해 특별한 논평을 하지 않았음.

● “오바마, 김정일 이후 대비해야” <LAT> (2/4)

- 미국의 버락 오바마 새 행정부는 아시아 동맹국들과 협력을 통해 북한의 갑작스런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미국의 외교전문가가 지적했음. 폴 스테어스 미 외교협회(CFP) 선임연구원은 3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은 북한 지도부가 조만간 변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변화가 반드시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음.
- 스테어스 연구원은 6개월 전 심한 뇌졸중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말 비로소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의 건강과 후계문제에 관한 우려가 완전히 불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통계학적으로 65세 이후 뇌졸중을 앓은 사람의 약 4분의 1이 1년 내에 사망하고, 5년간 생존할 가능성도 50대 50이라고 그는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달 16일이면 68세에 접어듦.
- 스테어스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권력 이양을 결정하면 아들 셋 중 한 명이 집권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들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들 한 명을 상징인물로 내세운 집단지도 체제가 들어설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히고, 그러나 그러한 집단지도 체제가 오래간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북한 급변사태 대비’라는 보고서를 공동으로 낸 바 있는 그는 만약 북한이 붕괴하기 시작한다면 국제사회는 대량 난민사태와 군사적 도발, 핵무기 유출 우려 등 여러 난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새 행정부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우선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는 능력을 신장시키고, 한국 및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통합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스테어스 연구원은 밝혔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과 관련된 위기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오해와 마찰을 줄이도록 중국과도 조용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스테어스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얼마나 더 집권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그러나 김 위원장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비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음.

● “美, 北 미사일 발사 준비 징후”(2/3)

- 미국은 최근 수주 동안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미 행정부 관리가 3일 밝혔음. 미국의 비확산담당 당국자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징후가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실제 발사를 할지 여부는 물론



언제 발사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이전에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장비운반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대포동 발사 움직임과 관련, “정보사항에 대해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활동과 프로그램은 역내에 우려가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드 부대변인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솔직히 도발적인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상기시켰음.

● 美전문가들 방북..“오바마 메시지 없다”(2/3)

- 미국의 거물급 북한 전문가들은 3일 방북길에 오르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북단의 일원인 모튼 아브라모위츠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바마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가느냐’는 질문에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 아브라모위츠 전 차관보는 구체적인 방북계획과 일정 등을 묻는 질문에 말을 아끼면서 “북한에 다녀와서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대답했음. 함께 방북길에 오른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미대사는 최근 북한이 강경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북한에서 누구를 만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북 기간 북·미간 협의할 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보즈워스 전 대사, 아브라모위츠 전 차관보, 리언 시걸 동북아 안보협력 프로그램 국장, 조너선 폴락 미 해군대학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방북단의 이번 방문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간 첫 민간교류로 꼽힘.

● “美정보당국, 김정일 건강 주시”<NPR>(2/3)

- 미국 정보당국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술탄 사우디아라비아 황태자의 건강상태를 후계구도 문제와 연관지어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미 공영라디오방송(NPR)이 2일 보도했음.
- NPR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후계절차가 일반적으로 명료하게 이뤄지지만 독재국가 또는 군주국가에서 강력한 지도자의 사망은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미 정보당국의 분석가들은 이들이 사망했을 때 각각의 경우가 미국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며 건강상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 김정일 위원장의 경우, 60대 초반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여름 뇌졸중



을 앓았던데다 당뇨병 증세까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문제가 복잡한 것으로 분석됐음.

- 특히 폴 스테어스 미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라는 보고서에서 뇌졸중에 걸린 사람들의 25%가 발병 1년 이내에 사망한다는 조사결과를 인용한 점이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이라고 밝혔음.
- NPR은 “김정일은 부친(김일성)으로부터 20년간에 걸쳐 후계자 수업을 받았으나, 김정일은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은데다 그의 후계자를 뽑는 과정에서 확실한 역할을 할 기관도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후계구도의 불투명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음.

● “유엔, 對北 제재효과 미미” <美전문가>(2/3)

-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실시 뒤 유엔이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가 북한의 가장 큰 두 무역상대인 한국과 중국의 대북무역에는 별다른 제재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가가 2일 주장했다.
- 워싱턴에 위치한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아시아 폴리시(Asia Policy)’ 최신호(2009년 1월호)의 ‘유엔의 대북제재 효과’라는 기고문에서 이같이 분석했음.
- 놀랜드 연구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제재를 받아 경제관계에 엄청난 반항을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엔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가장 큰 두 무역상대인 한국과 중국과의 무역관계에는 감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음. 놀랜드 연구원은 유엔이 대북제재 결의 채택 이후 남북간 및 북중간 교역규모가 이전에 비해 줄어들지 않았음을 한국과 중국 정부의 통계를 인용,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 지난 2006년 10월9일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자 유엔은 회원국들에게 북한에 대한 군수물자 수출 및 사치품 수출을 전면 중단토록 하는 유엔 결의(1718호)를 채택했었음.
- 놀랜드 연구원은 이처럼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의 대남(對南), 대중(對中) 무역에 미미한 영향을 미친 데 대해 ▲제재대상이 군수물자와 사치품으로 제한됐고, 사치품 규정도 각 회원국에 맡긴 점 ▲한국과 중국이 대북제재 발표 후 민간 기업들이 직면한 위기를 최소화하거나 상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지적했음.
- 그는 특히 한국에 대해 북한과 교역을 하거나 북한에 투자를 한 일부 한국 기업들은 정부가 통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북사업을 해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큰 위협을 감수하지 않고 북한과 계속 거래할 수 있었다고 밝혔음.
- 또 그는 “북핵 실험 후 한국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줄이겠다고 북한에 위협하기도 했지만 개성공단 등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등 북한



에 혼합된 메시지를 보냈다”며 전임 노무현 정부의 유엔 제재 소극적 이행을 간접 비판했음. 그러면서도 놀랜드 연구원은 유엔 제재가 남북, 북중간 무역을 가로막지는 않았지만 제재가 존재함으로써 북한 교역상대국들이 대북무역장벽을 더 낮추는 것은 막았고, 제재가 없었으면 성사됐을 무역을 막았을 수도 있다며 ‘가시화되지 않은 효과’를 강조하기도 했음.

● “클린턴, 亞방문때 北접촉의사 없어”(2/3)

- 미 국무부는 2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할 때 북한측 인사들과 접촉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클린턴 장관이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할 때 북한측 인사들과 접촉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와 같은 의사가 없다”고 답변했음.
- 클린턴 국무장관은 빠르면 이달 중순께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3개국을 순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 美, 中·북한·이란 기업에 제재조치(2/3)

- 미국 정부가 최근 중국, 북한, 이란 기업들에 대해 미사일 기술 등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무기수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과의 교역을 금지하는 제재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음. 2일 공개된 미 국무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를 받은 대상은 중국 기업 4개, 북한 기업 3개, 이란 기업 2개로 나타났다.
- 이번 제재는 이들 기업이 실제 미국과의 교역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에 불과함. 그러나 버락 오바마 새 행정부의 출범 이튿날인 지난 21일 이번 제재 조치가 취해졌다는 점에서 미사일 기술 이전에 대한 강경한 대처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됨.

다. 중·북 관계

● 中왕자루이 “北지지, 영원히 잊지 않을 것”(2/7)

- 중국 공산당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은 중국이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북한이 보내준 지지와 도움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북한 평양방송이 7일 보도.
- 왕 대외연락부장은 지난 5일 설에 즈음해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가진 연회에 참석, “중국인민이 제일 중시하고 관심하는 문제에서 중국의 방조(도움)와 지지가 제일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당신들의 힘있는 목소리와 따뜻한 도움의 손길, 역센 힘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 그는 최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가진 것 등을



거론하면서 “올해는 평생 잊을 수없는 해로 될 것”이라며 “중·조 친선의 해에 쌍방이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친선을 두터이 하고 교류를 다그치며 협조를 심화시켜 중·조친선협조관계에 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진수 중국 주재 북한대사는 “중·조친선의 해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해서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가일층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북한은 왕자루이 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회를 가진 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국의 대북무상지원 사실을 공식 보도했다.

● “中, 주변국에 김정일 건강 이상무 통보”(2/5)

- 중국의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최근 북한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한 것과 관련, 중국 당국이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안색이 좋고, 왼손 움직임도 문제가 없다”고 주변국에 통보했다고 일본 마이니치(毎日)신문이 5일 보도.
- 베이징(北京)의 외교 관계자가 마이니치에 밝힌 바에 따르면 왕 부장의 방북은 북한측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중국 고위 간부에게 김 위원장의 건재를 확인시키고 권력구조에 변화가 없음을 내외에 과시하기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 중국 당국은 지난달 21일 평양에 들어가 23일 백화원초대소에서 김 위원장과 면담하며 식사를 같이한 왕 부장의 보고를 토대로 주변국에 대해 “예전 보다도 머리숱이 적어 늘어보이긴 했으나 안색은 좋았으며, 대화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좌반신에 마비 증세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왼손으로 물건을 드는데 문제가 없었으며, 수족을 포함한 동작에도 부자연스러운 곳이 없었다”며 그의 건강에 별 문제가 없다는 총괄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신문은 전했다.
- 김 위원장은 왕 부장 일행과 2시간에 걸쳐 행동을 함께 하며 식사도 같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교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면 중국이 방북 결과를 각국에 통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中 “南北관계에 침묵한 적 없다”(2/5)

- 중국은 최근 북한의 각종 조치로 인해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 남북 관계 문제에 대해 침묵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사실상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받고 “중국 정부는 이미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말해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 장 대변인은 중국의 입장과 관련, “한반도의 이웃 국가로서 중국은



남북 양국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 그는 “각 당사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각자의 공통된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중국은 믿고 있다”면서 “우리는 남북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이 한반도 전체 국민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이 지역의 평화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中, ‘대북 무상원조’ 공식 확인(2/5)

- 중국은 자국이 북한에 무상원조를 제공기로 한 사실을 5일 공식 확인했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수년째 중국 정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북 무상원조를 계속해왔다”면서 “이는 북한 인민들이 경제난을 극복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이뤄져 온 것”이라고 말했다.
- 장 대변인은 그러나 무상원조의 성격이나 품목, 규모, 제공 시기 등을 묻는 질문에는 “추가로 제공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음.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중국 정부가 북한에 무상원조를 제공하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보도했음.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지난달 21~24일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한 뒤에 이같은 발표가 나온 것에 주목하고 왕 부장이 이번 방북에서 식량지원을 선물로 내놓았다는 설이 나돌고 있음.

● “中, 北 불법행위 중단대가 年20억달러 지원설”(2/5)

- 중국은 지난 2005년 북한의 불법자금세탁 개입 혐의가 드러나 제재를 받았던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 이후 북한에 불법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매년 미화 20억달러 상당의 대북 재정지원을 약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은 4일 발간한 ‘중국의 부상과 두 개의 한국’이라는 저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의 안정을 도모하고 중국식 경제개혁을 북한에 장려하는 중국 측 노력의 주요한 목적은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면서 “중국 지도부는 (북한에서) 안정과 개혁이 필수불가결하게 연결돼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이 김정일에게 북한의 불법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그와 동시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했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일부 소식통들은 중국의 대북 재정지원 약속 규모가 매년 미화 2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스나이더 연구원은 중국의 연간 대북지원 규모가 양국 간 연간 무역액보다 더 많다는 중국 학자들의 지적에서도 이 같은 중국의 대북



다”며 “중국은 시종일관 남북 양측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그는 북한의 긴장 고조 움직임이 북핵 6자회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즉답은 피한 채 “6자회담의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노력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각 당사국이 대화와 협력을 회담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 한·미 정보당국은 3일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미사일 기지에서 대포동 2호 미사일(사정 4천300km~6천km)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정밀 감시하고 있는 상황임.
- 장 대변인은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통해 후진타오(胡锦涛) 국가주석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중국으로 초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알려줄 만한 구체적(방중) 정보가 없다”고 말을 아꼈음.

라. 일·북 관계

● 조선신보 “北미사일..美주시하며 대응책 강구”(2/5)

- 북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5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또 최근 북한 외무성과 인민군 총참모부의 핵군축 주장에 대해 “북미간 교전상태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 조선신보는 이날 ‘미국의 군사위협에 대처한 외교공세’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언론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 언급, “조선의 군대는 당연히 적대국의 도발행위에 대처한다”며 “미군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신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도발적”이라고 규정한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의 브리핑을 거론, “언론을 이용한 일방적인 여론몰이는 미국의 상투적 수법”이라고 지적한 뒤 티머시 키팅 미 태평양사령관의 대북 급변사태 대비 군사연습 발언을 언급하며 “공중과 해상에서 미군의 군사장비들이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으로 몰려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 신문은 “오마바 정권이 출범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대조선 외교에서는 넉넉한 유예기간이 허용되지 않는 듯하다”며 “해마다 3월쯤에는 미군과 남조선군에 의한 대규모 군사연습이 진행되고 최근의 사태추이에 비춰볼 때 조선을 도발하고 군대의 신경을 자극하는 움직임들이 계속될 경우 보다 강경한 대응책이 강구될 공산이 높다”고 말해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 등의 기간에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가 이뤄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 **日, 北 미사일발사 움직임에 우려 표명(2/3)**

- 고타마 가즈오(児玉和夫)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 북한의 미사일 문제는 일본의 국가안보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의 견지에서 볼 때에도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를 표명했음.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된 정보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음.
- 일본 각료들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언급을 자제하는 등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음.

● **日 정부 “北 미사일 정보수집 전력”(2/3)**

-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본 관방장관은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기밀 정보에 관한 것이어서 언급을 피하겠지만 정부는 계속 중대한 관심을 갖고 정보수집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음.
-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외상도 “최근 들어 정보수집과 분석에 임하고 있으나 코멘트는 피하겠다”며 “만일 (발사) 위협이 임박했다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음.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도 “여러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음.

마. 기타

● **미얀마서 체포된 탈북자 19명 한국행(2/7)**

- 작년 12월초 미얀마 당국에 체포돼 태국으로 추방됐던 탈북자 19명이 모두 한국에 입국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전했다. 이 방송은 태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는 인권단체 관계자의 언급을 인용, “1차로 3명이 지난 2주 전에 출국했고 나머지 16명은 이번 주 태국을 떠났다”고 소개했음. 이 관계자는 “탈북자들은 남한행을 원했고 모두 이들의 소원대로 남한으로 간 것”이라고 말했음.
- 15명의 여성과 1명의 소년 등으로 구성된 이들 탈북자는 12월 초 미얀마에 불법입국 혐의로 체포돼 3주 이상 미얀마의 쉑퉁지역에서 억류생활을 하다가 12월말 태국으로 추방돼 약 1개월간의 태국이민국 본부에 있는 수용소에서 머물다가 한국행에 성공했음.
- 카싯 피로미야 태국 외무장관은 지난달 오영선 태국 주재 북한대사와 만나 탈북자들이 제3국으로 가기 위해 태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으므로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중국과 논의할 것을 요청해 앞으로 탈북자의 국내입국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 보임.

● **美 망명 마영에서 여권발급 귀국길 열려(2/7)**

- 한국에 정착했다가 참여정부 시절 정치탄압을 이유로 미국에 망명



했던 탈북자 마영애(53.여) 씨가 최근 한국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음. 마 씨는 2005년 6월 미국 내 한국공관에 여권 만료로 갱신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지 3년 7개월 만에 한국에 가는 길이 열렸음.

- 마 씨는 6일(현지시각)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 1월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에 여권을 신청했고 이달 3일 영사관에 직접 가서 10년짜리 전자여권을 받았다”고 밝혔음. 마 씨는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과 김성호 당시 국가정보원장 앞으로 여권발급을 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냈으며 그 후 혹시나 싶어서 여권을 신청했는데 뜻밖에 여권이 나와 너무나 기뻐다”고 덧붙였음.
- 이에 대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관계자는 “마 씨가 지난 1월 6일 여권을 신청해 이달 초 발급했다”고 확인하고 “탈북자의 경우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여권신청에 대해 심사를 거쳐서 발급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음.
- 마 씨는 북한 예술단원으로 활동하다 2000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했으며, 2004년 교회공연단을 이끌고 미국 애틀랜타로 선교공연을 갔을 당시 한국 정부로부터 북한 인권과 관련된 강연을 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미국 망명을 신청했었음. 마 씨는 “그동안 너무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여권이 나와 너무나 감사하고 경황이 없다”면서 “신학공부를 마치면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음.

● “대포동2호 발사시기 빨라질 가능성”(2/5)

- 정부는 북한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 기지로 운반한 대포동 2호 추정 미사일의 발사 시기가 애초 예상했던 1~2개월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5일 “무수단리 기지에서 식별된 대포동 2호 추정 미사일은 2006년 7월5일 시험발사 때 실패한 대포동 2호의 개량형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시험발사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을 개량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음.
- 3년 전 무수단리 기지에서 발사된 대포동 2호는 40초간 정상비행하다가 공중에서 부러져 발사대에서 2km 이내의 해안가에 추락했음.
- 소식통은 이와 관련, “발사에 실패한 미사일의 어느 부분을 개량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이번에 포착된 대포동 2호는 그때 발사된 미사일의 길이와 직경이 흡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음.
- 그는 “2006년 발사 때는 미사일이 기지에 도착한 지 2개월 만에 발사됐지만 이번에는 미사일의 탄체와 발사체 등을 보강한 것으로 추정돼 당시보다는 빠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발사 시기는 북한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선택할 것으로 보여 추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음.
- 북한은 무수단리 기지로 운반한 대포동 2호를 발사대에 장착하지는



않았으며 기지 인근 동해 상에 선박·항공기의 항해금지구역도 선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발사가 임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소식통은 “이번에 포착된 대포동 2호는 2006년에 발사됐던 미사일을 제조한 같은 미사일공장에서 나왔고, 도착 지점이나 도착지에서의 활동이 매우 흡사하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그는 “무수단리 기지에서 미사일 준비동향과 관련해 진전된 상황은 없다”며 “2006년 미사일 발사 때와 매우 유사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 북한은 지난달 말께 평양 이남의 한 미사일공장에서 제작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열차에 탑재해 무수단리 기지로 운반했음.
- 당국은 대포동 2호 사거리가 4천300km~6천km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포착된 대포동 2호는 탄체와 발사체를 보강한 개량형으로 추정돼 사거리가 더욱 늘어난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음.

● “유럽의회, 北에 남북관계 개선 주문” <RFA> (2/4)

- 글린 포드 유럽의회 의원은 최근 영국을 방문한 북한 노동당 대표단을 만나 남북관계 개선을 주문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전했다. 북한 대표단을 초청한 포드 의원은 이 방송과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근 조평통 성명 등과 관련해 북한 대표단에 남북간 긴장상황을 해소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 그는 또 오는 3월 유럽의회 의원 3~6명으로 대표단을 구성,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번 방북을 통해 남북간 긴장 해소와 북핵 6자회담에 북한이 적극 임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유럽과 북한간 정치·사회적 교류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포드 의원은 지난 8년간 유럽연합 국가들이 북한에 제공한 인도 지원과 경수로 건설 지원, 소규모 개발 지원이 5억 유로에 달한다며,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北, 미사일 제3의 장소로 운반 가능성” (2/3)

-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사정 4천300~6천여km로 추정되는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제3의 장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밀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3일 “지난달 말께 평양 이남 지역의 한 군수공장에서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실은 열차를 포착했다”면서 “현재 이 열차를 정밀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 소식통은 “군수공장에서 나온 열차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미사일 기지나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 기지로 향할 수도 있지만 제3의 장소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단계에서 이 열차의 최종 목적지가 어



디인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정밀 추적하면 목적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북한이 위성 추적이 가능한 낮 시간대에 미사일을 이동하는 것으로 미뤄 실제 발사보다는 대외적인 ‘무력시위’ 차원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한·미 정보당국은 지난달 말께 첩보위성을 통해 대형 ‘원통형 물체’를 실은 열차가 평양 이남의 한 군수공장에서 출발한 사실을 포착하고 정밀 추적에 들어갔다. 부 소식통은 이와 관련, “이 물체의 길이가 길어 일단 대포동 2호 미사일이 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물체가 미사일이 맞다면 발사대에 장착하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1~2달 내에 발사 준비를 마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이 원통형 물체가 덮개로 위장돼 있어 앞으로 정밀 식별이 필요하다”면서 “거의 완공 단계인 동창리 기지 주변에 사람과 차량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관측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북측의 군사동향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 줄 수 없다”면서도 “현재 군은 북측의 (미사일과 관련한)동향을 정밀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지난달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전면 군사대비태세 돌입’ 성명과 같은 달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정치·군사합의사항 무효’ 성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분석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산케이(産經)신문도 이날 미국 등의 정찰위성이 미사일 발사 준비로 보이는 북한내 움직임을 확인했으며 1~2개월 내에 발사 준비가 완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번 미사일이 대포동 2호의 개량형일 가능성도 있으며 개량형일 경우 사거리는 1만km에 달할 것으로 보여 미국 본토도 사정권에 들게 된다고 보도했다.
- 북한은 2006년 7월 5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40초간 정상비행을 하다가 공중에서 부러져 발사대에서 2km 이내의 해안가에 추락했다.

● 北,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움직임(2/3)

-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미사일 기지에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정밀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의 한 소식통은 3일 “정보당국이 최근 위성을 통해 평안북도의 한 군수공장에서 ‘원통형 물체’로 추정되는 부품을 실은 열차가 동창리로 향하는 사실을 포착했다”면서 “이 물체의 길이가 길어 일단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소식통은 “이 물체가 미사일이 맞다면 대포동 2호(사정 4천300km~6천km)일 가능성이 크다”며 “발사대에 장착하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1~2달 내에 발사 준비를 마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열차에 탑재된 물체가 덮개로 위장돼 있어 정밀 식별이 필요하다”면서 “만약 미사일이라면 북한은 군사적인 긴장 조성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창리 기지와 관련한 특이동향 외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나 다른 특이한 군사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정부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지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전면 군사대비태세 돌입’ 성명,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정치·군사합의사항 무효’ 성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분석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7~8년 전부터 동창리 미사일기지를 건설했으며 작년 말 완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기지에는 탄도미사일이나 로켓을 지지할 수 있는 10층 높이의 타워가 세워져 있으며 인공위성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보당국은 분석하고 있음. 작년 5~6월에는 장거리미사일용으로 추정되는 로켓 엔진 성능실험을 했음.

● “北 이동전화 가입자 6천명… 획기적”(2/3)

- 지난해 12월 북한에서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한 이집트 ‘오라스콤 텔레콤’의 사위라스 회장은 2일 NHK와의 인터뷰에서 “가입자는 6천명 정도가 됐다”며 “이는 획기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NHK는 3일 사위라스 회장과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그의 이런 발언은 북한 정권이 휴대전화 이용을 특권 계층만이 아니라 일반에도 개방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사위라스 회장은 또 “북한이 외국 기업에 휴대전화 사업을 개방한 것은 경제력을 강화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며 북한 정권이 통신 분야의 개발을 계기로 외자를 추가로 도입해 경제를 부양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사위라스 회장은 북한 당국에 의한 휴대전화 감청 문제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한 층 더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北, EU와 대화 재개 희망”<RFA>(2/3)

- 지난달 27일 영국을 방문한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유럽연합(EU)과 관계 개선을 희망하면서 조력발전 기술의 전수 등을 EU에 요청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전했다. RFA에 따르면 박경선 당 중앙위 부부장을 단장으로 과학자도 포함된 노동당 대표단은 지난주 영국에 도착해 영국 외무부 관리와 ‘북한통’인 글린 포드 의원 등 유럽의회 의원들을 면담, 2005년 단절된 북한과 EU 간 대화 재개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2005년 EU가 대북 인권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한 이후 대화가 단절됐음.
- 북한 대표단은 또 EU에 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전을 요청하면서, 북한 해상의 간만의 차가 큰 점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의 전수를 요청했다고 포드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대해



포드 의원은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면 에너지 기술을 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영국 외무부도 핵문제와 인권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고 방송은 보도했음.

● 北김정일, 반기문 총장에 연하장(2/3)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등 각국 지도자들에게 연하장을 보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이 3일 보도했음.
- 북한 매체들은 그러나 반 총장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은 채 ‘유엔 사무총장’이라고만 밝혔고, 그 순서도 아프리카동맹위원회 위원장 등 단체장이나 모스크바 시장 등과 함께 묶어 처리했음. 북한 매체들은 2007년 1월 1일 반 총장이 취임한 이래 각종 보도에서 종래와 달리 유엔 사무총장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직책만 말하고 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국, 한미FTA에 인내심 발휘해야”(2/3)

- 에번스 리비어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비준동의 문제와 관련, “한국측은 이 문제를 진전시키는데 있어서 적당한 시점까지 인내심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리비어 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진보성향의 브루킹스연구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 “너무 빨리 이 문제를 진행시킬 경우,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음.
- 그는 “물론 미국 의회가 한미FTA를 비준동의하는 것은 긴급하고 한미 양자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일이지는 하지만 미국 자동차업계 및 노동계의 우려는 쉽게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여기에다 미국이 직면한 경제위기가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고 진단했음. 그는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다룰 ‘창의적인 메커니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 이전에 FTA 내용에 대한 ‘수정’이 가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음. 그러나 리비어 회장은 “만일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어떤 시점이든 한미FTA의 의회 비준동의를 얻는데 실패한다면 한미 양자관계에 중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음.
- 리비어 회장은 최근 북한의 연쇄적인 대남 비난 성명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며 오바마 정부를 시험하려 드는 측면이 있다”면서 “북한은 앞으로 좀 침묵을 지켜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음.



- 이어 리비어 회장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결정은 외무성 부상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는 만큼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 일본 정부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특사를 파견,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 미·일 관계

● 日, 클린턴 방일시 납치가족 면담 추진(2/8)

- 일본 정부가 오는 16일 일본을 방문하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방일 기간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8일 보도했음.
- 이는 클린턴 장관을 통해 버락 오바마 새 미국 정권에 납치문제의 중요성을 부각,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클린턴 장관이 방일 일정이 18일까지로 짧아서 실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로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2006년 4월 미국을 방문한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씨의 모친인 요코타 사키에(横田早紀江)씨를 백악관으로 불러 면담한 바 있음.

☀ 국제관계연구실 제공